

전남교육청 '꿈과 끼를 키우는 배움터'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정규교육과정 외 공교육 프로그램으로 각받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15일 오후 청사 5

층 중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상반기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갖고 '꿈과 끼를 키우는 배움터'로서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22개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내실화·기능 확대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53명 참석 방안 모색

주무관 및 전담 실무사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전남교육청은 올 한해 전남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매뉴얼과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10개 시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영역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방과후학교는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을 통해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하는 교육활동이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올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 선택제를 운영하고 재료를 포함한 수용비를 전년 대비 5% 인상해 교의 질을 높이기

로 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올해 초등돌봄교실도 전년 대비 30실을 늘려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서비스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복지과 허호 과장은 "방과후학교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더 민중스러운 교육활동으로 자리잡도록 교육지원청 및 업무 담당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도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현 기자



광주 대동고 '수학과 친해지는 날'

3월 14일 파이(π)데이 지정 운영...국립광주과학관 지원

광주대동고등학교가 수학과 친해지는 날을 3월 14일 파이(π)데이로 지정하여 운영했다.

이 행사는 뜻있는 수학교사들이 사비를 털어 진행하고 있는 수학버스킹으로 인연을 맺은 국립광주과학관이 학교현장에 대한 수학문화 대중화 확산사업의 하나로 '파이데이 이벤트'를 학교에 지원하며 이루어졌다.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의 광주수학체험센터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5개 학교(광안중, 문흥중, 우산중, 장덕고, 광주대동고)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이벤트 지원,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행사 프로그램과 물품을 지원하였다.

광주대동고등학교 수학체험활동 탐구동아리 학생들이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파이데이 주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Activity-Creative-Wisdom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구성을 통해 직접 행사를 홍보하고 도우미로 활

동하는 등 파이데이를 주관하였다.

314페이지를 열어나 신발단저 3.13m, 파이 포토존 사진찍기, 파이수화시팅기, 페이스 감상, 파이데이 퀴즈 등 전교생이 최소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미니 이항분포기 경품 핸드폰 거치대, 씨앗연필, 파이데이 하트 퍼즐 등 꾸밈한 상품도 전학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더했다.

광주대동고등학교 최은성 교사는 "국립광주과학관의 도움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학행사를 추진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학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수학교사들은 국립광주과학관 그리고 광주수학체험센터와 함께 수학문화의 대중화에 힘쓸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여수웅천중, 월드비전과 MOU체결

'1만원 용돈모아에티오피아 우물 파주기' 학생회 특색사업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 비전스쿨을 운영중인 여수웅천중학교(교장 임남근)가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월드비전과 '1만원의 행복-에티오피아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해 혼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여수웅천중은 매년 자신모금 활동을 벌여 수익금을 아름다운 가게 및 에덴동산에 기부해왔는데, 월드비전에서 운영중인 세계시민교육의 저변 확대를 학교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

여수=송기홍 기자

다.

특히, 이번 '1만원 용돈 모아 에티오피아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 참여는 학생회가 지난해 12월부터 회의를 개최하면서 2019학년도 학생회 특색사업으로 설정해 추진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해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학생회는 글로벌 희망의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랑의 빵 저금통을 희망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용돈 중에서 1만원씩 모아 월드비전에 전달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황톳물을 사람과 가족이 함께 마시면서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 이들의 30%가 사망하는 상황에서 우물 하나가 마을 주민 약 1,000명에게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아 외국 동진 및 소액권 모아 기부하기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순천대 사회과학대 유일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치남) 사회과학대학 유일 학장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순천대학교는 최근 대학본부에서 성치남 총장 직무대리와 유일 학장을 비롯해 대학 보직자와 발전지원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탁식을 열었다.

유일 학장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나아가 원대한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학생들과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성치남 총장 직무대리는 "소중한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학장님의 뜻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최근 경영행정 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2기 졸업생과 21대 총동문회가 각각 600만 원과 500만 원, 총 1,1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발전기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영재 당당한 출발, 우주로 품다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지난 14일 Wee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자연·발명영재학생 88명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 180여명을 초대하여 2019학년도 고흥영재교육원 입학식을 가졌다.

고흥영재교육원은 '감성과 지성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고흥영재' 육성을 목표로 초·중등 자연영재 3개

반과 발명영재 초등 2개반을 선발하였다. 교과활동은 수학, 창의과학을 중심으로 인문, SW 등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는 계절별 창의캠프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영재교육원생과 학부모들은 탐구 토론 능력과 과제집착력을 향상시

키는 산출물발표회,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영특한 재능나눔 봉사활동, 그리고 고흥 지역의 풍부한 우주·항공관련 체험 프로젝트 등 폭넓은 교육활동과 새로운 분야 도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병도 교육지원과장은 "역사를 바꾸는 힘은 10만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고흥영재들이 그 10만 시간의 첫발을 이 첫 영재교육원에서 걸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완도군 어르신들, 만학의 꿈 이루다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식) 문생기 교육지원과장은 지난 15일 완도평생교육원 제2회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졸업식 행사에 참석해 전라남도교육감 명의의 초등학력 인정서를 수여했다.

완도평생교육원은 1998년 완도제 일경로대학으로 개강하여, 2006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 전라남도교육감지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년 15명 2019년 8명 총 23명의 초등문해교육프로그램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50대부터 70대의 어르신들 50여명이 만학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 중에 있다.



졸업식장에는 만학도의 꿈을 이루신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참석해 졸업식을 빛내주었으며 초등학력 인정과정 최고령자인 임방자(76세) 어르신은 "3년간 인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만학의 꿈을 이루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완도교육청 및 완도평생교육원장님께 감사를 표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중암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광천 010-6612-8599	금호 010-6636-2775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상무 010-5359-7406	풍암 010-6634-5084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봉선 010-9474-0212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완도 010-9578-5900	장성 010-5287-7711
담양 010-3629-9016	무안 010-5234-2313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